

장수 가항마을 발전사업 ‘불허가’

전북자치도, 업체에 통보... 연계된 의료·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서류접수 하지 않은 상황

장수군은 장계면 금곡리 가항마을에 발전사업을 신청했던 A업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최종 불허가를 통보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스타발전 4호기, 총 9Mw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며 도에서는 장수군과 한국전력 장수지사의 의견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업체에서 제출한 발전사업 계획에 따르면 허가 신청한 발전시설 4기가 추후 사업신청 예정인 의료·산업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잔열을 활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지역 주민들은 발전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여러 환경 요인이 근처 마을주민뿐 아니라 장수군 전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오고 있다.

장수군 또한 발전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법률이나 조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해당 사업부지에 여러 가지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어 발전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입장 의견을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가항마을 발전사업 반대 현수막

에 회신한 바 있다.

그리고 업체가 전북지방환경청에 발전시설과 연계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서류접수는 아직까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장계면 폐기물처리 및 발전시설 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수군은 청정지역을 간판으로 먹거리 농축산물의 생산을 주업으로 하고 청정 환경을 유지하는 일이 장수군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위 사업은 우리지역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된다”며 “발

전사업은 불허가로 결정됐으나 해당 부지에 의료·산업 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여부가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장수군 역시 인근 지자체에까지 미치는 환경영향과 시설의 입지 여건, 주민의 건강·생활환경 보전 등 다방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문화예술인 한마당 개최

문화학교 수강생 발표회·전시회 등 ‘문화가족의 날 행사’ 열려

‘제36회 문화가족의 날’ 행사가 지난 11월 30일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무주문화원 주관으로 ‘문화학교’의 1년 활동을 결산하고, 관내 문화예술인들이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지난 1년간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문화 공연(스틸링 드럼과 통가타 등)을 시작으로 기념식이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맹갑상 무주문화원 원장, 부문별 수상자, 문화원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맹갑상 문화원장은 “무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고 발전시켜 미래세대에 전승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주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무주문화원 이명희 감사가 무주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인홍 무주군수로 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무주문화원 김용 회원이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또 무주문화원 서예 강사인 임성곤씨가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표창장을 받았으며, 무주문

화원 민화 강사인 김순미 씨가 전북문화원연합회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무주읍 김정미 읍장, 문화원 회원 최지은 씨가 각각 무주문화원 장 상을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주도해주시는 무주문화원 측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주민들의 문화·예술적 욕구 충족과 건강한 활동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잘 것”을 당부했다.

최북미술관 1층 로비에서는 자재공예를 이용한 전통과우치 만들기과 보타니컬, 서예 등 올해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려 주민 등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편, 무주문화원은 문화교류화합,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등을 추진했으며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적산 산사고 이안행렬 포쇄 재연 및 기록화, 동방일사 송병선 무계구곡 압각서 탁본 전시회 등을 진행해 왔다. 또한, 올해 문화학교를 통해 고선이류 입춤 상·하반기 총 15개의 강좌가 진행됐으며 197명이 수강에 참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희 정승 바자회 · 읍면지회 활성화사업 평가회 열려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는 지난달 28일 밤,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 해를 무사히 마치며 ‘2024년 회원 단합을 위한 바자회 및 사업 평가회’를 문예체육회관에서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황희 정승 바자회’는 ‘황희 정승이 동전 한 닢을 개울에 빠트렸을 때 하인에게 세 닢을 주고 한 닢을 꺼내게 했다. 황희 정승께 이유를 물으니 “나는 두 닢의 손해를 보지만, 국가는 한 닢의 이익을 보고, 너 또한 세 닢의 이익을 본다.”고 답했다.’는 우화에서 비롯됐다.

특히 이날 새 물건을 기부 받아 물건의 원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회원들도 기분 좋게 수익금으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부자들은 회원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쁨을 줬으니 그 만족감은 두 배 이상이 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수익금은 내년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간단한 후원전달식 후 가진 11개 읍·면 지회활성화 사업 보고회는 각 지회에서 하는 사업을 공유해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



초를 다졌다.

또한 전라북도여(女)약사회(회장 김주향)에서 겨울 이불 50채 후원과 진안군4-H연합회(회장 고상기)·제일약국(대표약사 서예영)·김창덕(개인)씨·박원순(회원)씨가 후원금을 전달하는 기부식도 이어졌다.

진안군 4-H연합회는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 꾸러미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후원했으며, 지난해부터는 현금 1백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김창덕 씨는 사니어 일자리를 다니며, 사회복지센터에서와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월급을

모아 현금 100만원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하달라고 후원을 하였다. 박원순(회원)씨도 좋은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50만원을 후원했다.

김진 회장은 “2024년 한해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회원분들과 수고 해주신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에 힘써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연말연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욱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모집

진안군보건소(소장 라영현)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12월 5일부터 내년 1월까지 모집한다.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허약하거나 만성질환으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1~5등급자,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참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 자가 측정기기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진안군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전화(063-430-8584, 8543)하거나 어르신 헬스케어실로 방문하면 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록 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허약하거나 만성질환 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1~5등급자,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참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 자가 측정기기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진안군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전화(063-430-8584, 8543)하거나 어르신 헬스케어실로 방문하면 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4회 진안군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성료

바르게살기운동 진안군협의회(회장 최순석)는 지난달 28일 ‘제4회 진안군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를 문화의집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전춘성 군수, 동창용 군의장 및 바르게살기운동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 이종서 회장 등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및 유공자 포상 등이 이뤄졌다. 이어 ‘삶의 주인이 되는 최고의 방법’이란 주제로 오영진 강사가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 전춘성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바르



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진안사회를 보다 밝고 건강한 사회,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이끄는 바르게살기운동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금연 성공자 만남의 날 행사 열려

진안군은 지난달 29일 금연 성공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 성공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진안군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총 188명이다. 이 중 3개월 성공자는 160명, 6개월 성공자는 80명으로 이들의 금연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참석자 간 금연 성공을 축하하고 금연서약문 낭독을 통해 평생 금연을 다짐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전북금연지원의 센터장인 오경재 교수님의 건강관리 특강으로 금연 의지를 북돋고, 웃음 치료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며 다시 한번 금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진안군은 금연 클리닉을 통해 전문상담사의 상담과 금연 보조제 제공을 통해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금연 건강교실, 이동 금연 클리닉 등을 운영하며 생활터 내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수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차별 없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 강사 김영미 강사를 초청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정적 편견 및 차별 제거’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장애가 지니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및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